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진 보도자료

보도 일시

4월22일(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화)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